

정심
미술

박문각 인문
영문

동양서점의 www.pmg.co.kr

교원임용시험 대비 최신개정판

정심 미술이론 하

정심 편자

PMG 박문각

예술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술 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부단히 연마하며, 마침내 임용시험의 높은 산을 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의미와 비전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본서는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가 될 사범대학교 학생들, 미술대학 학생들, 교육대학원 학생들과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미술 교사들 위해서 '미술'과 '미술교육'의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었습니다. 본서의 이론은 미술교육이론, 미술교육과정, 조형론, 서양회화, 전통회화, 조소, 서예, 판화, 색채학, 디자인, 공예,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한국미술사, 한국 현대미술사, 서양미술사, 현대미술사, 미학, 비평 등으로 장르와 영역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미술 임용시험의 특성상 서구 미학과 예술론, 조형론과 함께 미술교육론 등의 역사와 개념들을 백과사전적으로 총망라하거나 개별 개념들을 천착해 다룬 책입니다.

한편, 학문의 입문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학자들을 위한 도서는 쉽고 평이하면서도 내용은 깊이가 있어야 하며 학문연구에 대한 관심을 점차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구성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 대학의 미술이론 관련 학과에서 강의 중인 미술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미술교육학과, 교육대학원생들의 학문 경지를 넓혀 주는 필독도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중등교사임용시험 제도와 기술문제의 경향에 제시된 핵심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의 기반이 되는 중요 도서와 사진, 논문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1. 중등교사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중요 영역별 핵심이론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교과 교육학의 최근 이론과 사상 및 미술과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미술의 개념과 이론을 백과사전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미술의 특성상 시각적 계시물과 미술 작품 등은 모두 컬러 형식으로 제시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더욱 최적의 효과를 추구하였습니다.
4. 영역별 중요 이론의 핵심 문장과 함께 심층 내용을 동시에 수록하여 기초학습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사임용시험 제도는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다시 서술형으로, 매년 조금씩 개정되어가면서 점점 미술교과 지식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여러 권의 참고도서를 읽어야 하고, 수많은 이론을 이해, 암기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경향이 늘 예측하기 어렵도록 불규칙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될 수 있는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용시험은 합격이 중요합니다. 합격하려면 문제가 요구하는 요지와 관점에 딱 맞는 정답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요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평이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수록하려고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정샘은 최근 8년간 연속으로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출제경향과 예상 영역에 대한 예시 방향이 실제 출제 문제들과 근접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서 스스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울러 정샘과 함께 해온 수많은 수강생과 합격생들, 한결같이 정샘에게 믿음과 신뢰,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히 연구하며, “쉽고, 재미있고, 최단기 합격”에 이를 수 있는 명품 강의가 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사석성호(射石成虎)”라는 사자성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본서와 함께 독자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심을 다하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정진하며, 각자 소망하는 바를 꼭 이루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노력하며, 늘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술 교사라는 소명에 대한, 심오하고 감동적이며 열정적이고 고무적인 어조와 가르침에 대한 고봉과 기쁨”

차례

Part 01 동양 미술사

chapter 01 인도 미술	... 10
chapter 02 일본 미술	... 20
chapter 03 중국 미술	... 32
01 선진 시대	... 32
02 진·한 시대	... 36
03 육조 시대(위진 남북조 시대, 221~589)	... 38
04 수(581~618)·당(618~907) 시대	... 46
05 오(907~960) 십국 시대	... 52
06 송(북송: 960~1127 / 남송: 1127~1279) 시대	... 58
07 원(1271~1368) 시대	... 68
08 명(1368~1644) 시대	
- 중국 전통문화의 회복과 해금 정책	... 74
09 중국 20세기 미술(1945년까지)	... 80

Part 02 한국 미술사

chapter 01 선사~원삼국 시대 미술	... 88
01 선사 시대	... 88
02 삼국 시대	... 98
chapter 02 통일신라 시대 미술	... 148
01 회화와 서예	... 149
02 불상 조각	... 150
03 공예	... 160
04 도자	... 162
05 건축	... 165
06 탑파 건축 - 삼국통일 이후 석탑 건축 발달	... 168
chapter 03 고려 시대 미술	... 176
01 회화	... 177
02 조각	... 190
03 공예	... 202
04 고려 불사 건축	... 212

chapter 04 조선 시대 미술	… 224	chapter 05 근대 미술	… 342
01 조선 시대의 회화	… 224	01 한국 미술사에서 '근대'의 의미	… 342
1. 시대적 배경과 미술사 / 224		1. 한국 근대 미술사 / 342	
2. 사상적 배경 / 225		2. 한국 근·현대 미술단체 / 348	
3. 궁중 회화와 화원 체제의 회화적 특징 / 226		02 한국 근대 서양화·동양화	… 350
4. 초상화 / 230		1. 서양화 / 350	
5. 조선 회화의 시기별 구분 / 232		2. 1920~194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 / 354	
A 조선 초기의 회화 / 232		3. 동양화 / 368	
B 조선 중기의 회화 / 242		03 근대 조소	… 378
C 조선 후기의 회화		1. 근대 조소의 흐름 / 378	
- 새로운 화법과 회화관의 탄생 / 258		2. 한국 근대 조각의 특징 / 378	
D 조선 말기의 회화 / 290		3. 근대 조각가 / 379	
6. 서예 / 300		04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과 현대 미술작품	… 388
7. 불교 회화와 조각 / 302		1. 1950~196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 / 388	
02 조선 시대의 공예	… 306	2. 197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 / 402	
1. 도자 공예 / 306		3. 198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 / 406	
2. 목공예, 칠공예 / 316		4. 1980년대 이후 한국 조각계의 흐름 / 409	
03 조선 시대의 건축	… 320	05 근대 건축	… 410
1. 특징 / 320			
2. 주요 건축물 / 321			
3. 조선 시대 건축의 구조적 이해 / 328			

Part 03 서양 미술사

chapter 01 원시~근대 미술	... 414	chapter 02 모더니즘~현대 미술	... 548
01 원시~중세 미술	... 414	01 모더니즘	... 548
1. 원시 미술 / 414		A 아수파 / 572	
A 구석기 미술(BC 2만5천~1만2천 년경) / 414		B 표현주의 / 576	
B 신석기 미술 / 416		C 20세기 표현주의 / 580	
2. 고대 미술 / 418		D 독일 표현주의와 칸딘스키,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 581	
A 이집트 미술(BC 4000년경~BC 4세기) / 418		E 신즉물주의 / 586	
B 메소포타미아 미술(BC 4000년경~BC 7세기) / 420		F 입체파 / 590	
C 에게 미술(BC 3300년경) / 421		G 오르피즘(Orphism) / 596	
D 그리스 미술 / 422		H 소박파 미술(Naive Art) / 600	
E 로마 미술 / 434		I 미래주의(1905~1915) / 601	
3. 중세 미술 / 440		J 러시아 광선주의 / 607	
02 르네상스~근대 미술	... 460	K 절대주의 / 608	
1. 르네상스 / 460		L 구성주의(구축주의, 러시아 전위미술) / 611	
2. 매너리즘 - 새로운 미술 양식의 탄생 / 489		M 신조형주의(De Stijl, 1917년 결성) / 614	
3. 바로크 미술(17세기) / 492		N 에콜 드 파리 / 618	
4. 로코코 미술(18세기) / 510		O 다다 / 621	
5. 계몽주의 회화 - 바로크코적인 미술 / 518		P 초현실주의(Surrealism) / 631	
6. 근대 미술 / 522		02 1945년 이후의 양식(절정의 모더니즘)	... 650
		1. 코브라 그룹(CoBrA, 실존주의 미학) / 651	
		2. 공간주의(Spatialism) / 652	
		3. 영포르멜(Informal, 형을 부정함) / 654	
		4.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 656	
		5. 색면회화(色面繪畵, Color-Field Painting), 포스트 회화적 추상, 시스테익 페인팅] / 660	
		6. 후기 회화적 추상(그린버그가 명명함) / 662	
		7. 누보레알리즘(Nouveau Réalisme, 입체) / 664	
		8. 네오다다(Neo-Dada) / 671	
		9. 미니멀 아트(Minimal Art,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적용) / 674	

10. 팝아트(Pop Art) / 682
11. 옵아트(Optical Art, 망막의 미술, 시각적 추상) / 698
12. 키네틱 아트(Kinetic Art) / 700
- 03** 모더니즘의 해체와 그 이후의 현대 미술 ... 706
1. 극사실주의(Hyperrealism, 포스트 팝, 포스트 미니멀) / 708
 2. 대지미술(Land Art) / 712
 3. 개념미술(Conceptual Art) / 716
 4. 플럭서스(Fluxus) / 722
 5. 행위미술(Performance Art) · 퍼포먼스 · 해프닝 / 724
 6. 설치미술(Installation Art) / 725
 7. 과정미술(Process Art) / 726
 8. 비디오 아트(Video Art) / 727
 9. 미디어 아트(Media Art) / 732
 10. 레이저 아트(Laser Art) / 737
 11. 그라피티 아트(Graphic Art, 낙서미술) / 738
 12. 트란사반구아르디아(Transavanguardia) / 740
 13. 배드 페인팅(Bad Painting) / 742
 14.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 744
 15. 신흥상주의(Neo-Figurativism) / 746
 16. 신 구상회화(Figurative Painting) / 747
 17. 페미니스트 아트(Feminist Art) / 748
 18. 트루리즘(Truism) / 753
 19. 신개념주의(Neo-Conceptualism) / 754
 20. 네오지오(Neo-Geo) / 756
 21. 네오 팝 아트(Neo-Pop Art) / 757
 22. 1980년대 이후의 미술 / 758

Part 04 미학

- chapter 01** 고대~중세 미학 ... 764
1. 미의 개념 / 764
 2. 미학자 연구 / 765
- chapter 02** 근대 미학 ... 768
1. 근대 미학 이론 / 768
 2. 미학자 연구 / 771
- chapter 03** 현대 미학 ... 772
1. 현대 미학 이론 / 772
 2. 미학자 연구 / 777
- chapter 04** 예술 정의론(영·미의 현대 미학) ... 782
- 01**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 ... 782
- 02** 서양 미술 방법론 ... 788
- 03** 예술과 미에시스 ... 790



동양 미술사

Chapter 01 인도 미술

Chapter 02 일본 미술

Chapter 03 중국 미술

인도는 BC 400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또는 종족이 출몰하면서 종교와 관습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미술 작품은 복잡한 형식과 양식을 지녔다.

01 고왕조 미술(BC 320~230년경)

1. 마우리아(Maurya) 왕조

마우리아 왕조 시대 때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어 정치적인 미술품이 나타났다. 이 왕조의 3대 왕인 아소카(Asoka) 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자신의 왕도에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웠는데 이는 주로 그리스와 오리엔트 양식을 모방한 것이다.

알아두기

석가와 관계있는 땅에 석가를 기념하는 석주(石柱)를 세웠고 석가와 제자들의 유골을 보존하는 '스투파'라는 탑을 세웠다.

산치대탑	사리를 넣어둔 무덤(BC 3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재건축되었다. 원래 아소카가 세운 탑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BC 1세기에 이 지역을 통치한 사타바하나 왕조 시대에 지금의 모습으로 확장되었다)
아소카왕 석주	불교 성지에 기념물로 세운 것(위 - 사자 / 아래 - 소, 코끼리)
스투파	석가와 제자들의 유골을 보존하는 탑



아소카 왕 석주



아소카 왕 석주

2. 송가(Sunga) 왕조

마우리아 왕조의 뒤를 이은 송가 왕조는 동부의 갠지스강 일대를 중심으로 건국되어 불탑 조영 사업이 성하였다. 이들 불탑의 형식과 재료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동방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인도에서는 전조(塼造), 중국에서는 다층 누각식의 전조와 목조, 우리나라에서는 석조와 목조·전조, 일본에서는 목조와 불탑이 많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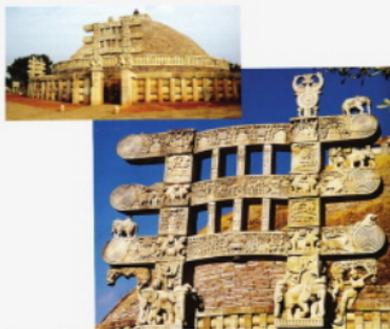
3. 안드라(Andra) 왕조

안드라 왕조는 송가 왕조에 이어 불교조영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인도 중부의 산치(Sanchi)는 불탑과 다양한 조각상이 장식된 탑문이 서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외래적 요소를 인도 고유의 전통과 함께 융합한 것이다. 아직은 불상을 표현하지 않고 대신 법륜(法輪), 불탑, 연꽃, 보리수 및 공백(空白) 등의 상징물을 표현하였다. 또 인도 전통의 조형성을 지닌 신상을 많이 제작하여, 이후 힌두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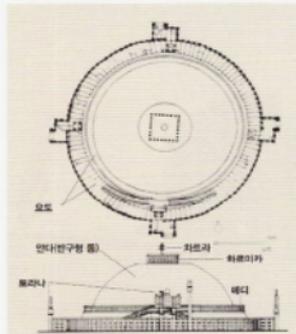
🗨️ 읽어두기

2세기 말부터 불상이 등장하는데, 이는 간다라 양식이나 마투라 양식과는 다르다.

산치대탑문	다양한 불전·설화를 조각하여 세운 것
아마라바티	외래의 영향을 잘 소화하여 인도 조각의 전통을 세운 조각상



(상)산치대탑(대사리탑) | 기원전 3세기, 기원전 150-50년경, 송가 왕조와 안드라 왕조 때 확장됨. 산치 인도
(하)대사리탑의 돌문(토라나, torana) | 출산, 풍요, 모든 생명의 원천을 상징한다.



주위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돌로 된 울타리(베디카)를 둘러싸고 사방에는 전기 안드라 시대에 만들어진 문(토라나)이 있다. 이 4개의 문에는 불전이나 본생담의 내용을 깊은 양각기법으로 새긴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02 쿠산 왕조(78~226)

인도의 서북지방은 서방세계와의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문화교류의 중요한 지대로서, 쿠산족은 이 지역을 기점으로 일어나 간다라 지방에 수도를 정하고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전파해 불탑의 조영과 불상, 불화의 제작 등 불교 미술이 크게 발전했다.

간다라 미술(BC 2세기~ / 전성기: AD 1~3세기, 혹은 5세기)

BC 2세기~AD 5세기, 고대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방(現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발달한 그리스·로마 풍의 불교 미술양식이다.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미술은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온 헬레니즘과 융합하여 '간다라 미술(Gandhara Art)'을 낳았다.

간다라 미술은 인도의 불교적 주제에 그리스 미술의 감각과 기술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다. 간다라 유파는 로마 종교의 신인동형적(神人同形的) 전통에 따라 부처를 젊은 아들로 같은 얼굴에 로마 황제와 비슷한 옷을 입혀 묘사했다. 이러한 간다라 미술의 발달은 건축에 있어서 석굴 양식과 공예의 당초문, 인동문 양식 등과 함께 서역,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방세계로 전파되었다.

03 알아두기

1. 간다라 미술의 조각

① 전기

석조를 주로 함. 석조는 모두 청옥빛의 편암(片岩)과 천매암(千枚岩)을 썼다.

② 후기

흙으로 토우(土偶)를 만드는 소조(塑造)만을 전적으로 행함. 소조에는 스투코를 사용하였다.

2. 간다라 미술의 내용

건축의 장식의장을 제외하고는 석가를 중심으로 한 불전도(佛傳圖)가 가장 많고, 예배대상인 불상·보살상과 천부(신상)(天部[神]像)도 빈번히 만들어졌다. 모두가 부조이며 불·보살 등 단독석상으로 환조(丸彫)가 아니라 배면을 평평히 한 고무조(高浮彫)로 하였다.

3. 형태, 자세, 복식

조각은 얼굴 모양이나 의습(衣褶) 등이 모두 그리스풍으로, 사실성이 풍부한 특색을 지녔으며 서방의 모티프의 상(像)의 형식을 그대로 본뜬 것도 적지 않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행해졌던 헬레니즘 미술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



간다라 불상 | 1세기



간다라 보살 | 2~3세기

마투라 미술(BC 2세기~AD 5세기)

인도 북부의 우타르프 라데슈 주, 델리 동남동 약 140km의 야무나(자무나) 강 서안에 면한 옛 도시 마투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석조(石彫)를 주로 한 미술이다.

인도 고유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마투라(Mathura) 미술'은 '간다라 미술'보다 인도 고유의 예술성을 지녀 이를 바탕으로 '힌두 미술(Hindu Art)'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힌두교는 브라만, 비슈누, 시바 등의 다신적 계급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창조, 생산 등을 상징하는 여신을 숭배하여 순결한 그대로의 나체상이 제작되었다.

재료는 적색 바탕에 황색과 백색 반점이 있는 사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서기 2세기경 마투라에서는 도터(치마)만 입고 몸이 비치는 얇은 길옷을 걸친 소위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인도적인 불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간다라와는 달리 소라 모양의 육계도 함께 표현되었다.

📌 일아두기 마투라 미술의 조각

1. 시대와 불상형식: 2세기 초두부터 인도 내부로서는 처음으로 불상을 표현했고, 같은 세기 중엽 무렵까지에 얇은 옷을 걸친 마투라 특유의 불상형식을 성립시켰다. 순인도 풍의 불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2. 굽타 시대는 마투라 조각이 활력을 되찾아 인도 고전문화의 고양기에 알맞게 높은 이념과 비약적으로 세련된 조법을 가지고, 새로운 조형규범에 근거한 새로운 양식의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어낸 시기이다. 자말푸르(Jamalpur) 출토의 불입상 2체(5세기)가 그것으로서, 사르나트의 불상과 함께 굽타 불상의 양식적 완성을 끝냈다.



마투라 불상



마투라 불상

📌 간다라 양식과 마투라 양식의 비교

구분	간다라 양식	마투라 양식
머리카락	곱슬머리, 물결모양, 장발	직상모
얼굴	• 가늘고 입술이 얇다. • 콧대가 우뚝하다.	둥글고 입술이 두툼하다.
옷	• 얇은 천을 두르고 있다. •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다.	상의를 벗고 있거나 얇게 걸치고 있다.



3) 한국적 화풍으로 발전 - 진경산수화가 그려진 시기

(1) 겸재 정선(1676~1759)

- ① 조선 후기 회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진경산수'라는 화풍을 성립시키고 유행시킨 화가이다.
- ② 서울 주변의 명승과 금강산의 실제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한 화면에 북방화법과 남방화법이 잘 조화되도록 결합시켜서 음양의 조화와 대비,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함께 공존하는 독자적인 조선 산수화풍을 창안하였다.
- ③ 실학사상의 영향과 남종화의 토대 위에 관찰에 의한 실경산수를 묘사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인왕제색도>, <금강전도>가 있다.

신묘년풍악도첩

정선이 첫 번째 금강산 유람에서 그린 화첩으로, 근경의 나무는 해조묘법, 물결법, 구름법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실경산수화이다.

읽기 자료 진경산수화

1. 명칭의 유래

-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경치를 사생한 그림을 실경산수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실경보다는 '진경(眞景, 眞境)'이라는 용어를 즐겨 썼다.
- ② 전통 회화에서 초상화를 사진(寫眞)이라 하는데, 이는 인물에 정신을 옮긴 듯하여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산수를 생물로 생각했을 때 지니는 겉모습을 포함해서 산수가 지니는 정신까지 알아 한다는 의미에서, 즉 '산수의 겉모습과 정신이 모두 닮은 산수화'라는 뜻으로 '진경'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보기도 한다.

2. 형성배경

- ① 영·정조 시대의 문화 부흥, 실학사상의 등장, 민속에 대한 자부심과 실사구시의 정신, 경제 부흥
- ② 우리 문화와 자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흐름

3. 의미

- ① 우리나라 산이나 강, 풍경 등을 직접 관찰하여 보고 느낀 것을 그렸다.
- ② 중국적인 화풍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인의 독특한 화풍으로 그렸다.

4. 정선의 미술사적 업적

- ① 한국의 자연을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독자적인 표현의 진경산수화를 만들었다.
- ② 남종화와 북종화의 특성을 결합하여 한국의 자연에 적절한 표현 양식을 개발하여 표현하였다.
- ③ 새로운 경향의 화풍들을 수용·소화하여 한국의 경관에 어울리는 한국적 화법을 구축하였다.

알아두기 정선파 화가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풍 화가로는 정선, 정황, 강희연, 강세황, 김윤겸, 정충업, 장시흥, 최복, 김응환, 김석신, 김득신, 김유성, 거연당, 김홍도, 이인문, 이명기, 임득령, 조정규, 김하중, 엄치홍 등이 있다.

준법명	도판	활용	표현 방법
상악준		뾰족뾰족한 바위산을 표현	붓을 똑바로 세워 속도감 있게 그린다.
미절준		녹음이 무성하고 습윤한 여름 산이나 수림, 나무가 많은 산이나 소나무를 표현	측필을 수평으로 짧게 찍듯이 구사하여 크고 작은 타원형의 점들로 표현한다.
피마준		흙이 많은 산을 표현	붓 끝을 이용하여 리듬감 있는 선으로 그린다.
쇄철법		넓고 거칠지 않은 바위를 표현	붓을 누어 쓸 듯 그린다.
수직준		진경산수에서 암산의 독특한 모습 표현	예리한 필선을 죽죽 그어 내린다.
직할준		거칠거칠한 바위 표면의 질감 묘사	수직으로 붓을 문지르듯 내려 긋는다.



금강전도

- 부감법에 의한 원형구도, 양과 음의 대립적 표현
- 북방화법사에서 취한 상악준, 남방화법의 영향에서 취한 먹짐, 태짐, 피마준, 토산수림법

〈금강전도〉는 금강산의 사실적 이미지와 겸재의 사의적(정신을 그리려는) 표현 정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그려진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이다. 금강산의 전체적인 특징을 추려내어 생략과 과장을 통해서 금강산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냈다.

㉠ 부감법에 의한 원형구도

실제로 한 화면에 금강산의 전체 모습을 담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겸재가 금강산을 여행하고 얻은 경험을 종합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부감법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원형 구도로서 그림의 중앙에 있는 만폭동에서 아래 하단의 비룡교로 흐르는 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주로 암석 봉우리들을 날카롭게 수직준으로 그리고, 왼쪽은 나무가 무성한 산이 부드럽게 피마준과 태짐을 가로잡을 찍어 그려서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금강산 곳곳에 있는 사찰과 명승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금강산 전체의 모습을 빠짐없이 조망하도록 하였다.

㉡ 대립적인 표현 기법

이 그림이 실제의 금강산의 모습과 달라도 금강산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금강산의 특징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강조해서 그렸기 때문이다. 겸재가 암석 봉우리(양)와 수풀이 우거진 토산(음)에 대립적인 표현 기법을 한 폭의 그림에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수한 화법 수련을 통해서 중국의 남방화법과 북방화법을 섭렵하고 이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중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양의 조화와 대비의 원리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중국의 북방화법과 남방화법의 영향

구체적으로 보면 정선은 중국의 북방화법에서 취한 서릿발 같이 날카로운 준법을 활용하여 백색 암봉의 날카롭고 모진 형상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중국 남방화법의 영향을 받아 가볍고 부드러운 필선으로 토산의 준을, 그리고 그 위에 침입수림은 먹점으로 쌓아올리고 나무 등치는 죽죽 그어 내리는 토산수림법(휴산에 나무숲 그리는 법)을 이용하여 토산의 우거진 수풀을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양대 산수화법을 통합하여 조선의 화풍으로 재창조하였다.



금강전도 | 겸재 정선, 1734,
종이에 담채, 59×130.7cm

박연폭포

이동시점과 산점투시적 공간 처리가 되었으며, 구도상에서 '점경'이 활용되었다.

폭포가 떨어져 내리고 있는 못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비해서, 못 가운데에 솟아 있는 바윗덩어리는 수평적 시점에서 바라본 것처럼 그려져 있고, 다시 폭포 위쪽의 암벽과 나무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다보고 그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는 폭대기의 가운데에 놓인 바위는 그 위치와 맞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린 것처럼 되어 있는가 하면, 화면 우측 상단에 그려진 문은 화면의 상단 부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묘사한 것처럼 그려져 있다.



박연폭포 | 정선

그 밖의 작품



청풍계 | 정선



만목동 | 정선



조이도 | 정선



(1) 역사적 배경

- ① 자연과학의 발달과 적용이 활발했던 시기
- ② 객관적 정확성과 이상적 아름다움의 조화와 이상적 사실주의 완성의 시기

(2) 화파별 구분

피렌체파

① 특징

사실주의 양식, 원근법에 대한 관심, 고전적 요소의 적용, 조형적인 형태주의, 형식주의

② 대표 작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밀라노파 화가로도 분류됨)

- ① 치밀한 관찰과 해부학을 통하여 인체의 이상이 표현
- ② 명암법, 투시원근법, 스쿠마토 기법 활용, 색채 원근법 활용
- ③ 그에게 '자연을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가만이 가장 훌륭한 과학자이며, 예술가가 본 것을 생각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 ④ 베로키오로부터 도제 수업을 받았으며, 근육과 혈관의 위치 등 인간과 동물의 해부학적 구도를 연구하였고, 소묘와 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 ⑤ 르네상스의 가장 훌륭한 업적, 즉 원근법과 자연에의 과학적인 접근, 인간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 이에 따른 수학적 비율 등을 완성하게 된다.

최후의 만찬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에서 그려진 것이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눈을 중심으로 원근법이 사용되었고, 뒤로 보이는 상징적 건축은 구도의 완벽한 균형감과 안정감을 준다. 이 그림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그림으로 옮긴 것인데, 그는 가장 치밀한 계산 아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한 무리의 군상을 목표로 했던 것 같다.



최후의 만찬 | 레오나르도 다 빈치

■ 모나리자

피렌체의 어느 부인을 그린 것이라 전해지는 이 작품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스무마토라는 특이한 채색법의 사용에 있다. 스무마토란 한 형태와 다른 형태가 뒤섞여 들어가는 듯한 채색법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상상할 거리를 남겨 놓는다.

🔴 알아두기 스무마토(stumato)

'연기'라는 뜻의 이탈리아에서 유래. 회화에서 '공중에 사라지는 연기'같이 색깔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도록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수법이다. 15세기 초 대가들의 특징인 지나치게 뚜렷하고 거친 윤곽선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하는 능력을 지닌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조르조네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법이다.



모나리자 | 레오나르도 다 빈치

선 원근법 사용, 삼각형 구도,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적용, 역자에 넣어 벽에 걸 목적으로 그린 최초의 그림, 윤곽선을 강조했던 이전 그림과 달리 '명암 대조법' 사용(스무마토 기법)



성 안나와 마리아, 아기 예수 | 레오나르도 다 빈치, 1510, 페닐에 유채
선 원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기 원근법을 구사하였다.



이사벨라 데스테의 초상 | 레오나르도 다 빈치, 1499, 드로잉(미완)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으로 그리려는 목적으로 아름다운 마돈나 상들과 매우 비슷한 유형으로 표현하였다.



레오나르도의 <암기에의 전투>(1503)를 모사한 드로잉 | 페데르 피올 루벤스, 1608

**미켈란젤로(로마파)-미켈란젤로-라파엘로-브라만테)**

- ㉠ 고전 조각의 조형기법과 정신성 강조
- ㉡ 피라미드형의 안정된 구도, 인체 해부학, 사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 ㉢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구원의 미술' 강조
- ㉣ <피에타>, <다비드>,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

📖 알아두기 다비드상

1.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설치 장소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미켈란젤로의 희망과 결정에 따라 베키오 궁 알 테라스에 설치되었다. 후에 피렌체 공화국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애국의 상징, 도시의 수호신으로서 시청 앞에 세워지기도 했다. 이 작품은 아외 조각으로서 또는 주변과의 조화를 피한 환경 조각으로서도 첫발을 내디뎠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조각을 건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3차원의 표현을 이룩한 점은 조각사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바다.
2. 조화와 균형을 숭상하는 도덕적인 이상의 영웅을 묘사했다.
3. 콘트라포스토(contrapposto) 자세를 취하여 균형 잡힌 인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르네상스는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추구하여 고대의 무활을 일린다.



다비드 | 미켈란젤로



피에타 | 미켈란젤로



아담의 탄생 | 미켈란젤로

읽기 자료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당의 프레스코화



천지창조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1508~1512, 프레스코



최후의 심판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1536~1541, 프레스코

1. 그리자유(grisaille)의 단색기법과 프레스코 채색 - <천지창조>
2. 세 장면은 <천지창조>의 여러 장면이 되고, 가운데에 해당하는 세 부분은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예덴 낙원의 추방이다. 그 다음 세 부분이 노아와 관계된다. 측랑 쪽의 여덟 개의 스펠드렐(spandrels)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조들이 묘사되고 네 귀퉁이인 삼각형 화면에는 이스라엘 구원의 기적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천장화는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예언에 이르기까지의 장면이 파노라마로 퍼여 있다.
3. 1533년 중순 당시의 교황 클레멘스 7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 위 벽에 <최후의 심판도>를 그리라는 명을 받았다. 클레멘스 7세가 이 그림을 주문한 것은 스페인 군에 의한 로마의 점령과 악달 등 재난의 연속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는데, 1534년 교황의 사망으로 이 작업은 일단 중지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클레멘스 7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바오로 3세가 다시 이 작업을 의뢰함으로써 1535년 4월 16일 발판의 조립이 시작되었다.
4. 1710부터 2년간 안니발레 마추올리(Annibale Mazzuoli)라는 담당자는 그리스 와인과 스펠드렐을 이용해 검은 때를 닦아 내었다고 한다. 클리닝뿐 아니라 복원 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1565년과 1572년에 닦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762년 최후의 심판 장면 부위의 덧칠 부분 등, 그늘음으로 어두워진 곳이나 색이 떨어진 부분에 몇 번에 걸친 수리 기록이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 프레스코화는 이미 미켈란젤로의 의도와는 달라져 있는 작품이었다.



최후의 심판(부분) | 미켈란젤로

바울로라는 그의 오른손에는 칼을, 그의 왼손에는 자신의 살가죽을 들고 있으며 이는 순교자의 승리를 상징한다.

그런데 살가죽을 든 바울로라는 얼굴과 살가죽 바울로라는 얼굴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그려졌다. 살가죽 바울로라는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로,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교원임용시험 대비 최신개정판

정심 미술이론 하

초판인쇄 2020년 1월 10일

초판발행 2020년 1월 15일

편저 정성

발행인 박용

발행처 (주)박문각출판

등록 2015. 4. 29. 제2015-000104호

주소 0665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83 서경빌딩

전화 (02) 3489-9400 (교재주문, 학습문의)

팩스 (02) 584-2927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자생략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가 43,000원

ISBN 979-11-6444-347-5 | ISBN 979-11-6444-348-2(세트)



2019 한국우수브랜드평가대상
교육브랜드 부문 수상



2018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교육서비스 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17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 수상



2016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선정



브랜드스탁 BSI
브랜드 가치평가 1위



정샘 미술이론^(하)

